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Vung Zam Cing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5:21-26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Reconciliation"	Pastor
* Hymn	221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Reconciliation”

Matthew 5:21–26

There are many who assume that Jesus came to counteract the legal prescriptions in the Old Testament. But in reality, Jesus himself said,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v.17). In other words, Jesus' way was totally consistent with the way of the Law. As matter of fact, he warned, "Anyone who break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rs others to do the same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v.19). Moreover, Jesus challenged his disciples that their righteousness must surpass that of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v.20). Basically, what Jesus is saying is that the righteousness claimed by the religious rulers did not quite measure up to the standard of God's Law. But how could this be? The people in general had viewed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s models of legal righteousness. But what Jesus points out in the following texts (Matthew 5:21ff.) is that the Pharisees may have emphasized the external regulations (and these, according to their own traditional ways of interpretation), but they have missed out on God's true intention regarding the Law. Thus, what Jesus is now demanding is that true righteousness in the kingdom must begin with a proper heart or inner motivation. Essentially, Jesus came to restore God's original intent for the Law by establishing a higher standard of the Law which includes both inner motives and external acts. This requires an inner transformation and Spirit-assisted power which are available only to those who are willing to submit themselves to Jesus Christ and his kingdom principles. For all the disciples of Jesus, then, our righteousness indeed surpasses even that of religious elites, like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simply because we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e have been imputed with Christ's righteousness. We have been endowed with Christ's Spirit. We have Christ's standard as prescrib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How truly blessed we are in Christ!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Leadership Study and Discu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led by Jordan Dover)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Ji Youn Lheem)
 - 1:00 pm (Room 104) - Doctrinal Study (led by Jimmy Eppley)
 - 1:00 pm (Room 104) - Study on "Worship" (led by Brother Gai)
 - 1:00 pm (2nd floor) - Study on "Christian Character" (led by Sister Cing)
 -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Brother Amaraa)
- Saturday English Class (Room 606), alternating between 12:30 pm and 6:30 pm (alternating between instructors, Richard Hammett and Jimmy Eppley)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801 호	
토요꿈나무영아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신혼자정공동체		오후 3시20분	102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할 장석남 황 광 유문진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인성 노정호 천세종 양 세라 교육전도사 최민혁 구본태 장재원 정대은 Gaichuang Panmei, Vung Zam Cing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선 교 사 강기훈주하나, 권요셉(조지스타), 김도세(이화대), 전광필(서아사), 이은근(강제정(카자흐스탄) 스스로되려요), 조남배, 박진영(김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경, 우상삼(김정옥(인도), 정상진(홍승일(팔라우), 서광준(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만라(체코), 이재훈(박재원(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재희(필리핀), 김영호(서형정(시리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송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광조(사라(몽골(아사아), 김기형 * 오영(캐나다), 김영성(차드), 김태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사관), 김종일(백준비(티카도노자), 탕, 썬, 코, 카, 마, 이, 당, 사무엘, 레이, 남, 생, 티베트, 사위, 카을, 람, 흐르, 라비, 벤, 비에, 마을, 짜,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도, 수웨이, 수바스, 이경림, 알로몽, 비사누보도, 보디스토, 린름, 수라존(방글라데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

— — — — —

담임목사
Senior Pastor

비시 강난구 대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저 높은 곳을 향하여”

("Pressing on to the Higher Ground")

■ 창 49:29-33, 50:22-26

오늘 주신 말씀은 아담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은 죽음이라는 주제 말씀에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 있
으나,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도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 7: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어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1.시간

첫 번째, 우리가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알아야 할 지혜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을 허락 받았습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없으나, 확실한 것은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시 89:47)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까워 때가 악하니라” (엡 5:16)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습니까? TV 앞에서 허비하고 게을리하고 허비하고, 이 세상의 저러고 없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아람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며,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전 10:31)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 죽음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별은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도 모두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마땅히 고백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죽음도 주어졌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아담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소원합니다.

3. 죽음 이후의 삶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신비 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후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직 그 방법이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천국을 소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된 삶을 준비하며 누리게 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